

불황 극복 7대 제안... [] 의 온도를 높이자

과소비 막고 지역경제 살리는 지름길

재래시장 이용 자금 역외유출 막아
가격·품질 따지는 절약습관 키워야

현명한 소비

대형마트가 거대자본과 편리함을 앞세워 생활 깊숙히 파고든 사이 전통시장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시장경영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12년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전통시장이 2008년 26개에서 지난해 21곳으로 줄었고 전남도 124곳에서 116곳으로 감소했다.

매년 1조원을 훨씬 넘는 소비가 대형마트에서 이뤄지면서 지역의 내수시장은 갈수록 침체의 늪에 빠지고 있다.

대형마트로 흘러들어간 돈이 지역 경제로 환원되거나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이 정착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변화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명한소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부 20년차 서수연(43·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씨가 10년째 전통시장을 이용하면서 느낀 것은 자신에게 필요했던 합리적인 소비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현명한 소비라 여겼다는 점이다.

서씨도 지난 2004년 인근 지역에

대형마트가 문을 열었을 때 6개월 가량 대형마트를 이용했다.

서씨는 "1+1 등 광고문구를 보고 안사면 손해보는 느낌이 늘어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쓸 물건들이라 구입했는데 집에와서 정리하다 보면 막상 불필요한 것들이 많았다"며 "마트를 가게 되면 이것저것 담다보니 2004년도에도 최소 5만~10만원을 쓰게돼 필요이상으로 지출이 많았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에서 사 온 물건을 정리하면 냉장고 안이 가득 차고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아 싸게 샀던 '1+1' 행사 상품은 다 먹지도 못하고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또 한꺼번에 사다보니 채소 등 신선식품이 시간이 지날수록 신선도가 떨어져 상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

반면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쇼핑할 때 불편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돈 뿐만 아니라 시간이 절약된다고 서씨는 강조했다.

서씨는 "대형마트는 가족끼리 놀러 가다보니 1시간 이상 머물다보면 '결물생심'이라고 필요없는 물건까지 사게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시장은 쇼핑하는 과정이 대형마트보다는 불편하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쇼핑하는 것이 힘들어 필



8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우산매일시장에서 서수연씨가 가격과 품질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

요한 물건만 사고 나오게 된다"고 말했다.

필요한 것만 사고 버리는 음식이 줄어들면서 식비도 대형마트를 이용했을 때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서씨는 "대형마트를 이용했을 때

는 한 달에 300만원을 써도 부족하게 느껴졌었는데 전통시장을 이용하면서부터는 200만원도 부족하지 않게 느껴진다"며 "2004년 당시와 비교했을 때 식비가 많게는 50%, 평균 30~40% 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동부그룹, 대우일렉 인수 의미와 전망

광주 '제2의 가전시대' 열렸다

광주에 기반을 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8일 동부그룹 품에 안기면서 대우일렉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위크아웃에 들어간 지 13년이 지난 데다 5차례나 매각이 유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대우일렉이 종합전자 회사를 만들겠다는 동부그룹의 의욕에 맞춰 새로운 회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업체 인수로 인한 기술 유출이나 공장 해의 이전 가능성도 사라지면서 임직원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고무적인 반응이다.

대우일렉은 '탱크주'를 앞세워 삼성·LG와 함께 가전 3사로 자리매김했던 대우전자가 전신이다. 지난 1985년 광주에 가전공장을 설립한 뒤 1999년에는 매출액 8000억원, 고용 인원 3000여명으로 지역 백색가전의 중추기업이었으나 IMF 여파로 1999년 위크아웃 기업으로 지정됐다. 한 때 국내의 1만2000명에 이르렀던 직

노조·지역 경제계 환영

'명성 되찾기' 투자 기대

원은 수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쳐 지난해 1400명 수준으로 줄었다. 국내에 유일한 광주공장은 5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며 연간 350만대의 냉장고와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대우일렉이 해외 공장들과 함께 연간 생산하는 생산량의 40%를 차지한다.

대우일렉은 프리미엄 제품보다는 중저가 중심의 '미디엄로우'(Medium-Low) 제품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철저한 현지화 전략으로 동남아와 중동, 중남미 등 해외매출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주요 판매국의 가전제품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어 위크아웃 속에서도 최근 4년간 흑자경영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매

출액은 1조9000억원에 이른다.

동부그룹은 이런 대우일렉의 사업성과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며 장점을 지속적으로 살려 나갈 계획이다. 특히 대우일렉이 해외에 확보하고 있는 영업망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그룹은 당분간 대우일렉 인원에 대한 구조조정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우일렉 인수에 김준기 동부 회장의 신념이 크게 작용해 기업을 키우기 위한 투자가 이뤄질지도 관심이 있다.

대우일렉 노조 김영보 광주지부장은 "수차례 매각 불발로 동부그룹의 인수가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계약이 체결돼 기쁘다"며 "위크아웃 기간동안 시설 투자가 미진했던 만큼 동부가 투자와 연구개발에 힘을 보태 예전의 명성을 다시 되찾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작년 공공주택 착공 물량 8만 가구...예년 수준 회복

한동안 부진하던 공공주택 착공 물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보급자리주택 5만195가구를 포함해 총 8만1799가구의 공공주택을 착공했다고 8일 밝혔다.

LH는 이 가운데 전체 착공물량의 89%인 7만2494가구를 착공했다. 이는 당초 목표치인 7만1000가구를 초과 달성한 수치다.

이에 비해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착공 물량은 2010년 1만9640가구에서 지난해에는 9305가구를 감소해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중형 임대아파트 '중흥S-클래스 리버티'

5년후 분양전환 시세차익 매력

중흥건설이 중형 임대아파트 '중흥S-클래스 리버티'를 11일부터 공급에 나선다. <조감도> 광산구 우산동에 들어설 '중흥S-클래스 리버티'는 총 849세대로, 84㎡(구 34평), 74㎡(구 30

평, 쾌적한 단지 경관은 물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하는 등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시설을 자랑한다.

단지 주변으로는 영산강 생태하천을 비롯, 공원과 녹지공간이 확보돼 있으며 하남 상업지구와도 가깝다. 또 무진로 등을 이용, 상부지구 접근성이 뛰어나고 제2순환로와 호남고속도로,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를 통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장점이다.

'중흥S-클래스 리버티'는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로, 입주 5년 뒤 분양 전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임대아파트는 입주인에 대해 분양권 전환을 허용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견본주택은 광주 서구 능성역 사거리 메리트웨딩을 옆에 있으며 11일 개관한다. 문의(062-364-0001). /임동률기자 exian@

광산구 우산동에 849세대 공급



삼성전자 연매출 200조원 시대

국내기업 중 처음 달성
작년 영업이익은 29조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매출 2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작년 1년동안의 영업이익도 29조원을 넘겨 '30조원 시대'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삼성전자는 작년 10월 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연결기준 작년 4분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은 56조원, 영업이익은 8조 8000억원이라고 8일 공시했다.

이는 분기 기준 사상최대 실적이었다. 작년 3분기(매출 52조1800억원, 영업이익 8조6000억원)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어가며 3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최근 증권정보제공업체인 에프엔 가이드가 발표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추정치(매출 55조5530억원, 영업이익 8조4358억원)와 비교하면 매출은 4000여억원, 영업이익은 3000

여억원 각각 많다.

4분기에 다시 최대실적을 경신한 데 따라 삼성전자의 작년 연간 실적은 매출 201조5000억원, 영업이익 29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금까지의 양 부문 최대 실적을 갈아치운 것이다. 종전에는 매출은 2011년 165조원, 영업이익은 2010년 17조3천억원이 최대였다. 2011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21.9%,

영업이익은 85.8% 늘어났다. 특히 매출 200조원 시대를 열어 의미를 더했다. 국내 기업이 1년동안 200조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은 처음이다.

연간 영업이익도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삼성전자가 2011년 16조2천4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자 2012년에 20조원을 달성하느냐가 작년 초 업계의 관심이었지만 실제 실적은 30조원에 육박했다. /연합뉴스

Summary box containing economic indicators: 코스피지수 1997.94 (-13.31), 코스닥지수 509.01 (+0.29), 금리 (국고채 3년) 2.74% (-0.02), 원·달러 환율 1063.00원 (+0.70). Includes a note: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서비스업 재해예방 기초안전지원 사업”수행기관 공모



서비스업 재해예방 7대 업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서비스업 재해예방 기초안전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3년 1월 9일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장

사업개요

50인 미만 서비스업 현장의 재해예방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한 기초 안전점검 수행을 통해 안전수칙을 전파하고, 해당 업종별 안전보건 자료 제공 등으로 재해예방 효과 창출

* 7대업종 :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위험및유사서비스업, 음식및숙박업, 도소매및 소비자용품수리업,교육, 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업,사업서비스업

신청자격

비영리 법인, 비영리 조합, 비영리 단체
* 비영리기관 :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허가, 지정, 신고, 인증 포함)된 비영리법인, 조합 및 단체

공모기간

2013. 1.9(수)~ 2013. 1.15(화) (7일간)

신청방법

공모참여신청서(제안서, 비영리법인지정서 1부 등)를 지역본부 서비스 재해예방팀에 제출

세부사업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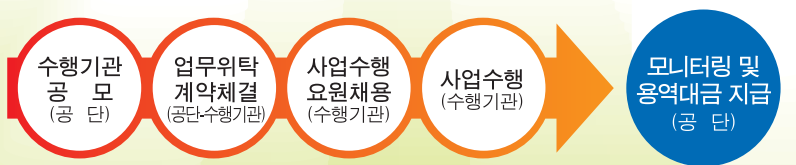
- 사업수행기간 : '13년 2월 ~ 11월 (10개월)
사업물량 : 25만 개소

(단위: 개소, 백만원)

Table with 7 columns: 구분, 서울지역, 부산지역, 대구지역, 경인지역, 광주지역, 대전지역. Rows include 사업분부, 물량, 용역금액(성과급), 수행지역, 문의처.

* 성과급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6등급) 지급

사업수행 절차



수행업무 및 방법

- 수행업무 : 업종별 다발 재해사례 전파 및 예방대책 제시
- 자료보급 : 재해예방 정보자료 보급
- 안전교육 :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간이식 안전보건 교육 실시

수행방법

- 사업수행요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수행

사업수행요원 채용

업무위탁기관에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채용
- 수행요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공단에서 주관하는 소양 교육 이수
* 수행요원 교육비용은 수행기관에서 부담

수행업체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공모 시 제출한 제안서 심사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선정기준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충족도, 사업수행 능력평가, 수행계획 적정성, 품질관리의 적정성 등

결과발표 : 해당업체에 개별통보

* 제출된 공모참가 신청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공고문 참조

